

[성가대용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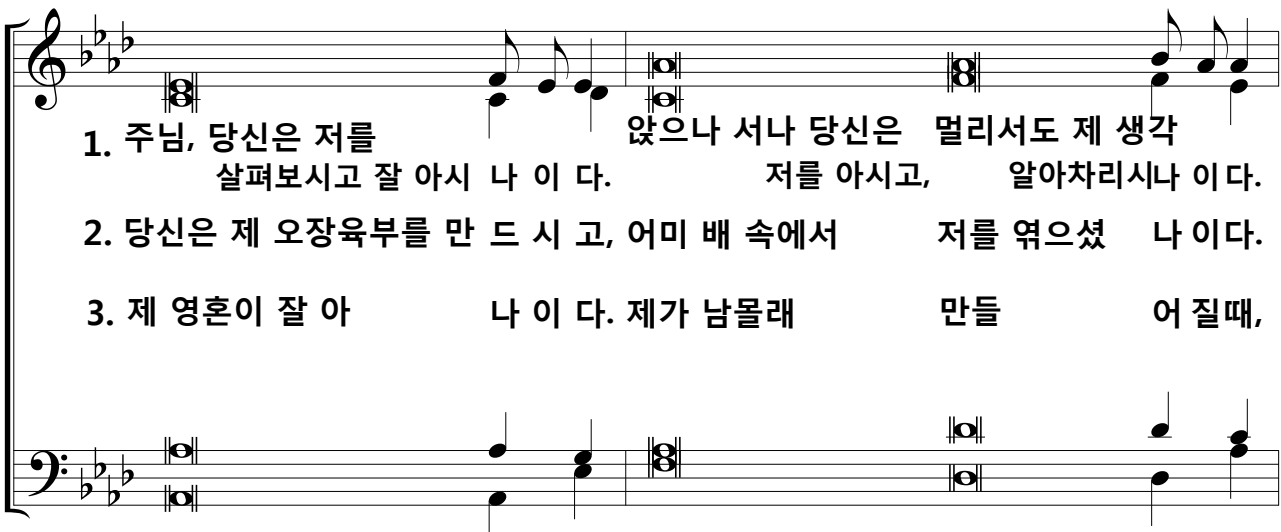
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

2018. 06. 24

시편 139(138), 1-3. 13-14ㄴ. 14ㄷ-15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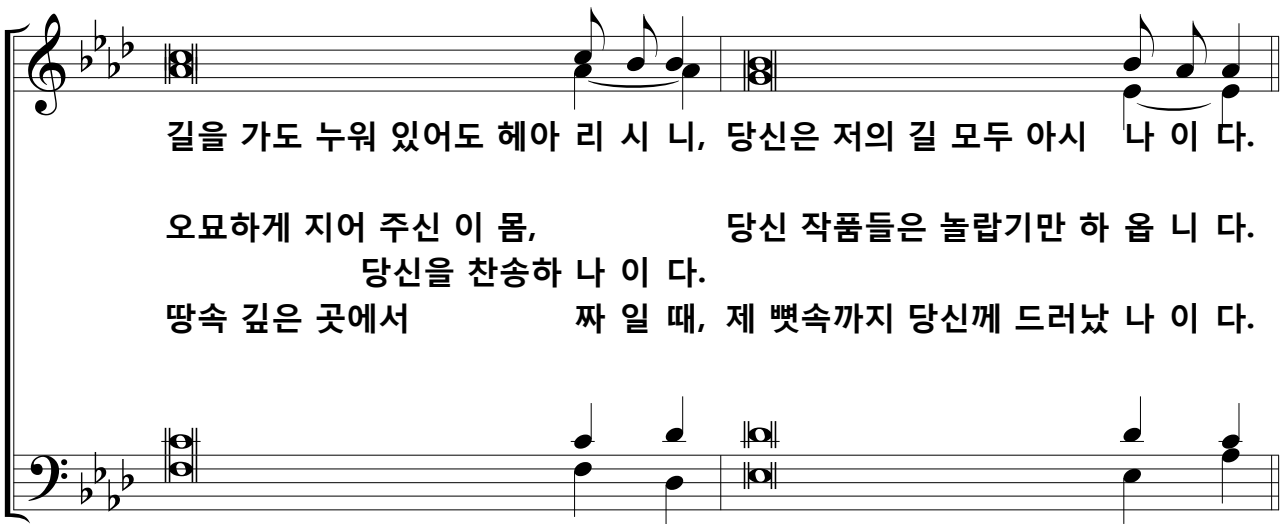
(후렴) 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- 몸, 당신을 찬송 하 나 이 다.



1. 주님, 당신은 저를 앞으나 서나 당신은 멀리서도 제 생각
살펴보시고 잘 아시 나 이 다. 저를 아시고, 알아차리시나 이다.

2. 당신은 제 오장육부를 만 드 시 고, 어미 배 속에서 저를 엮으셨 나 이다.

3. 제 영혼이 잘 아 나 이 다. 제가 남몰래 만들 어 질 때,



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헤아 리 시 니, 당신은 저의 길 모두 아시 나 이 다.

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, 당신 작품들은 놀랍기만 하 옅 니 다.

 당신을 찬송하 나 이 다.

땅속 깊은 곳에서 짜 일 때, 제 뱃속까지 당신께 드러났 나 이 다.